攝心 信實 慈愛 度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7年 (檀紀 4320年) 4月 30日 第122號 【1】

발행인 鄭 在 哲
편집인 申 益 炫
인쇄인 崔 在 旭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우리 故鄕중에 故鄕이여

小說英雄門®

*金一江 옮김

갈수록 더큰 英雄을 세우는 金庸 小說의 최고봉「소설영웅문」!

金庸 大河歷史 長篇小說

제1부·몽고의별 전6권 完刊!
제2부·영웅의별 전6권 完刊!
小說英雄門·제3부 中原의별 出刊!

제1부·몽고의 별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큰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곽정과 그의 연인 황용! 무수한 영웅호걸들이 출몰하는 어지러운 대륙의 역사 속에서도 信義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진짜 사나이들을 위한 大河歷史 長篇小說!

제2부·영웅의별 모순에 찬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지순한 사랑으로 연인 양과를 英雄門으로 이끄는 소용녀! 현대여성들의 애정관에 충격을 던진 너무나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의 神話!

제3부·中原의별 우환이 많은 人間世 속에서 大仁大勇의 心氣를 키워가는 영웅 장무기와 그에게 사랑을 바치는 美人 조민! 사랑의 신성불가침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허무를 극복한 허무의 경지에 이르는 莊子的 소설!

*제1부·전6권/제2부·전6권/제3부·전6권/각 330면 내외 *각권 값3,000원 *낱권판매
*서점에 있읍니다. *제1부·제2부·제3부 중 어느 것을 택해서 읽으셔도 재미있읍니다.

處世學의 교과서, 政治學의 보감, 企業經營의 지침서, 鄭飛石作 小說孫子兵法!

小說孫子兵法

●전4권/각300면 내외/각권 값2,800원/낱권판매♣서점에 있읍니다.

小說楚漢誌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說楚漢誌!

小說楚漢誌

●전5권/각300면 내외/각권 값2,800원/낱권판매♣서점에 있읍니다.

인류사상 最大의 인생흥망극, 鄭飛石作 小說三國志!

小說三國志

●전6권/각330면 내외/각권 값2,800원/낱권판매♣서점에 있읍니다.

고려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6622호 영업부:(353)6441-3 편집부:(759)7741-3

東友會報 창간 11周年

76年, 開校 70周年 기해 創刊

7만 東國人의 架橋, 東友會報가 창간11주년을 맞았다. 同門들의 대학와 우의의 광장으로서 母校와 本會의 성장과 발전의 전달자로 앞장서온 東友會報는 그동안 조직강화, 동문발굴, 장학사업의 전개등 7만 동문사회의 정보매체로서 지난 11년을 매진하여 왔다.

1976년 5월8일 母校 개교 70주년을 기해 창간호를 낸이래 지령122號를 기록해온 東友會報는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격월간으로 발행하며 동문간의 화합조성등을 주사업으로 펼쳐왔다.

회보가 창간되기 이전에도前身格으로 작은 지면이 東大新聞(1972년 6월 5일부터) 3면하단에 마련되어 회보창간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그후72년 9월20일 회장단 회의에서 회보발간을 결의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당시 尹天泳(66농학·세운건업대표)사무국장과 申寬浩(73경제·동대신문편집국장)동문이 취재와 편집을 담당해 창간호가 탄생하게 되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어오던 東友會報는 73년3월 지령 11號부터 월간으로 바뀌었으며 85년 3월 지령 1백號를 맞으면서 8년에서 12년으로 증년과 함께 가로 쓰기를 단행, 겉지는 모조지의 칼라面으로 꾸미기시작했다.

지령 122號, 창간11주년을 맞는 東友會報는 앞으로 더욱 동문들과 함께하는 會報가 되고자 동문들이 직접참여하는 欄을 확대할예정이며 보다알찬내용으로 동문들을 찾아 갈 것이다.

또한 지부 재파악, 새동문찾기를 비롯해 동창회관건립, 장학기금조성등 母校와 本會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東友의 架橋 東友會報가 오는 5月8日로 創刊11周年을 맞는다.

東大新聞 결호 찾기
축쇄본 제작 위해

母校 東大新聞社에서는 東大新聞 缺號찾기운동을 벌이고있다. 지난 50년 4월15일 창간, 母校역사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東大新聞은 개교80주년기념사업일환으로 東大新聞축쇄본을 제작, 그동안 동대신문이 밝혀왔던 校內·外 흐름을 한눈에 볼수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결호로는 2·4·5·6·7·8·9·10·11·13·14·16·359·368·373·374·375·376·377·378·395·396·409·519·520·684·694·695호 등인데 동문들중 上記 결호를 보관하고 있는분은 東大新聞社에 연락, 여러동문이 함께 할수있는 축쇄본이 되었으면한다. (연락처)Tel 267—8577(직) 267—8131(교)

第16次 定期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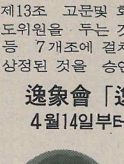
25日 母校 동국관서

제16차 본회 정기총회가 4월25일 모교 東國館L501호에서 있다.

지난 3월21일 본회사무국 특설회의장에서 있었던 제49차 정기이사회에서 상정된 회칙개정안 이사회에서 선임된 회장추대및 회장에 일임한 임원등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최종 승인한다.

제16차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할 회칙개정안에는 본회명칭을 東國大 總同窓會로 하는 것과 제13조 고문및 회장단 함에 지도위원을 두는 것을 삽입하는등 7개조에 걸쳐 이사회에서 상정된 것을 승인 받게된다.

逸象會「逸象展」
4월14일부터 6일간



母校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서양화) 전공 졸업생들의 모임인 逸象會의 제4회 일상전(추지위간사=金鐘聲·사진)이 4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 6일간 서울갤러리 2실(서울신문사)에서 있었다.

유영위원인 宋鎭世, 崔相善동문 작품을 비롯하여 金鍾五, 吳南吉, 崔洛京 동문등 同會회원 20여명의 작품 45점이 전시되었다.

「政研會」장학금 지급
5月中에 정기총회 예정

모교 정치외교학과 연구실 출신들의 모임인 政研會(회장=金英煥·67·태평양화학 비서실장·사진)에서는 정외과연구실 후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있다.

64년 4월19일 64년정외과 1기졸업생을 중심으로 구성된동회는 82년 겨울부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결정, 지금까지 9명의 후배에게 장학금(수업료반액상당·25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3학년에 재학중인 金奬喆군에게 지급되었다.

同會는 한달에 한번의 월례모임과 춘계·추계정기총회를 갖고있는데 87년 춘계총회는 5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현재회원은 94명이다.

同會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회장=金英煥(67·태평양화학 비서실장) ▲부회장=高龍圭(74·명인제약영업이사) 徐昌洙(68·태평양화학 연수원차장) ▲감사=車文熙(79·공무원) ▲고문=李炳華(64·부산대교수) 兪光霞 (64·모교 교수) 崔相哲(64·자하기업대표) 金文煥(64·세진가구대표) ▲총무=權五允(대학원 재학중)

東友漫評 鄭雲耕

發展의 초석

"同門카드 電算化작업"

同窓會員 카드

姓 名	한문:	한글:	
出身大學	東國大學校	大學 科	年卒業
職場名		職位:	
電 話	職場:	自宅:	
自宅住所			
大學院 관계			
(모교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碩·博士과정 모두 記載할것)			
碩 士	專攻科目:	修了年度:	
博 士	專攻科目:	修了年度:	
特殊및 대학원		修了年度:	

本會사무국 이전과 함께 컴퓨터를 도입, 동문간의 보다 빠른 정보교환및 본회조직강화일환으로 同門찾기 倍加運動을 벌이고 있는 동창회에서는 이를위해 금년중에 全會員의 인적사항을 파악, 전산화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에대한 준비작업을 착수하였읍니다. 금년말 까지는 전산화 작업완료를 목표로 하고있는 본회 사무국에서는 동문들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컴퓨터에 입력될수 있도록 한사람도 빠짐없이 위의 동창회원카드 양식에 의거, 정확한 주소를 작성하여 보내줄것을 당부합니다.

7만 東國人의 카드는 접수되는대로 곧바로 이를 전산화할 예정인데 우선 東友會報를 받아보고있는 동문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접수해줄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아울러 본인의 접수가 끝난다음에는 주위의 동문여러분께도 알려주셔서 全동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위양식을 보낼 주소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각급지회「定總」활발

86年 결산및 임원개선

각 支會의 정기총회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經營大學院동창회를 비롯하여 법학과, 경영학과, 東國文學人會, 法五會, 영동동우회등의 정총이 87년을 맞아 86년을 결산하며 새임원을 선출하는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法學科 定期總會가 지난4월17日 오후6시 母校 계산고시학사에서 金東正회장을 비롯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86년결산및 임원개선, 87년 사업계획 수립, 축하패수여등이 있었던 이날 총회에서 李永昶(58법학) 동문에게 치안본부장 취임 축하패가 수여되었으며 회의가 끝난후에는 연회가 있었다.

경영학과 정기총회가 4월23일 본회사무국특설회의장에서 白正基(64)회장을 비롯해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86년도 결산, 87년사업계획승인, 임원개선등이 있었던 이번 총회 임원개선에서는 현白회장을 유임시켰으며 87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장학위원회를 발족, 후배들을 위한 효과적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經大院 경영대학원 동창회(회장=曺奎·外交洋行대표 총동창회 부회장)에서는 지난 3월27일오후7시 앰버서더호텔 (2층 서궁)에서 모교 吳德永 원장을 비롯한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자리에서는 86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제8대 임원개선을하였는데 現 曺奎회장을 유임시켰으며 許湘九(11기)鄭燦明(13)동문을 감사로 認准하고 부회장과 이사진은 신임회장에 위임했다.

한편 신임 曺회장은 이날인사말을 통해 동창회관건립기금모금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며 1천6백여명의 동회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한양행東友會 정기총회가 지난 4월17일 오후7시 대방동 삼보가든에서 회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86년도 결산 및 87년도 사업계획안등을 토의했으며 이정주회장, 김승남 前북부지점장, 이광운 前채권관리부장, 이정일 前충남지점장 등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86년결산및 87년 사업계획수립, 임원개선등이 있었는데 새로 개선된 임원진은 다음 과같다.

▲고문=申興均(62경제·상무) ▲회장=車重根 (68상학 기획조정실과장) ▲부회장=任澤鎬 (73통계·솔톤과장), 金正浩(71경제·경남지점장) ▲총무=金仁洙(83經碩·자재부주임) ▲감사=李禹徹 (74영문·내자과장)

東國文學人會 定期 總會가 지난 3월26일 오후6시 문예진흥원 레강당에서 姜敏(60국문)회장 金容喆(61국문 東大新聞주간)부회장 신익현본회사무국장을 비롯해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 東國文學의 활성화 방향등이 논의되었는데 신임회장에는 李炯基(56불교 모교교수)동문이 선출되었다.

思索의 廣場 —— 人生이란

永遠性을 추구하며 永遠生命추구……

人生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듭되는 질문이요 完全히 풀지 못한 部分인것 같다.

그러나 常識線에서 본다면 動物本能的인것과 人間만이 갖는 지정의의 思惟的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수 있을것 같다.

前者의 경우는 人間도 역시 모든 동물과 같이 본능적으로 영양을 섭취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생식기능으로 種族을 번식키위하여 주어진 생명을 다함에는 변함이없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본능만으로는 만족치 아니하는것은 思惟하는 능력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사는것이 참된 삶인가?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이러한 생각속에서 자기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그 가치를 알려고 不斷이 노력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即 時空에 對하여 영원성을 추구하며 永遠生命을 창출하려고 탐구하게된다.

비록 80平生의 짧은 人生이지만 그 限定된 時空을 넘어서 영원한 生命力과 接木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現實的으로 나타난것이 바로 人類文明이며 오늘의 찬란한 文化들이 창조된 것이라 생각된다.

진실을 탐구함으로서 철학이 탄생되고 文字의 탐구가 학문을 이룩하고 數理의 연구가 과학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니 예술이 나타나고, 생활의 영원한 부를 희구하고 노력하니 풍요가 이룩되고, 인생의 근본과 生死를 탐구하니 宗教가 나타나게 된것이라 보아진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같이 자기의 짧은 人生을 승화시켜 지키고 변하지 않게하는 사유와 희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영원함과 접할수있는 위대한 眞理를 創出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절실한 탐구는「神앞에 萬人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낳았고 釋迦의 生死에 對한 根本的 번민은「人間은 佛性的 存在로서 누구나 부처(佛陀)될수있다는 大解脫의 自由人이다」을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眞理를 발견케 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 생명의 영원함을 실감케 하는 계절이다.

누구의 힘에의한것이 아닌 本來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大自然의 法則의 順理와 生動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인생을 다시한번 돌아보면서 영원한 眞理를 향한 자기 성찰과 思惟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思索의 廣場에서 손으로 턱을 고이고 한번쯤 根原的인 自己로 돌아가 보자.

알 림

思索의광장은 同門여러분의 난입니다.

한번 생각해야할 哲學的문제, 人生觀등을 동문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백자 원고지 7~8매 분량의 玉稿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故鄕 東岳의 옥토

——東友會報 창간 11주년에

東友會報는 7萬 동국인의 살아 숨쉬는 몸체이다. 그래서 東友會報는 그 많은 동문의 활약상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 체구를 늘려갈 것이다. 비록 몸은 동악을 떠나 있지만 마음만은 결코 떠날수 없는 우리 東國人들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튼튼한 다리이기도 하다. 항상 부처님의 말씀과 스승님들의 薰陶가 충만했던 동악을 떠나 사회에 나가 동분서주하는 동문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東友會報인 셈이다.

東國의 세력은 사실 엄청나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앞세우느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버린 무사안일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 온게 벌써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그것이 결코 높은 곳에서 헛기침만 해대는 오만이아니라 南山 코끼리의 眞面目을 드러내기 위한 착실한 발걸음이었음을 이젠 모두 알고 있는 터이지만.

東友會報와 인연을 맺은 것은 83년 한해를 전후한 짧은 기간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동악이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면 東友會報는 그 고향의 식구들을 키워가는 沃土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 고향의 옥토에서 소출이 많아야 온 식구들의 마음이 흡족하듯 東友會報가 풍성하게 꾸며져야 東國人의 맥박이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옥토의 관리자는 동창회에 관계하는 모든분들이지만. 그무렵에는 이미 일궈진 밭에서 소출이 줄어들게 하지않으려고 전전긍긍했지만 끝내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책에 젖으면서 東友會報의 앞날을 위해 몇마디 건의하고자 한다.

우리 7萬 東國人은 東友會報의 발전이 동창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철저하게 믿고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국인을 연결시켜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동국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동창회의 창립이념이며 그 이념을 가장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東友會報다. 그래서고향은 동악이지만, 그 고향을잊어버리고 있는 많은 동문들에

李 相 奉

<77국교 · 前 本會총무>

"우리 東國人들의 만남위한 튼튼한 다리이기도"

게 한 장의 東友會報는 충분히 고향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東友會報는 동문과 동문, 동문과 재학생, 선배와 후배가 서로 同鄕임을 잊지않고 살아가게 해주은 것이다. 東國과 인연을 맺었기에 동국을 사랑해야 하고, 동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빌며, 더불어 東友會報 역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을 임의로 바꿀수 없듯이 東國人이면 누구나 東國에 대한 사랑 역시 필연적임을 알고있다.

東友會報가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것이 동문 상호간의 가교 역할에서만 찾을수 있는 것는 아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때때로 日記 쓰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싶은 충동을 느낀다는데, 하물며「우리 고향중의 고향」에서「萬古成長」해 가야 할 東國人의 會報일진대, 그 역사의 기록이란 점에서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좀더 잘하자는 뜻에서 몇가지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東友會報에 대한 동국인 모두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 발간의 의의나 가치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東友會報는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가 새롭게 떠오를 것이고, 뒤이어 발전의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발전방안의 세부사항으로 첫손 꼽을 것이 제작 방식의 개편이다.

7만 동국인의 손발이 되자면 구태의연해서는 안된다. 10년전 창간된 이래 本會및 支會와 모교 소식을 비롯 同門 개개인의 동정을 알리고, 한편으론 많은 선배동문들의 동국발전에대한 의견 개진의 광장 역할을 해오면서 발전에의 몸부림을 쳐온 것은 사실이다. 제5집까지 낸「東國人名錄」이나 장학사업, 各支會의 창립 등 큰 사업들의 뒤에는 항시 東友會報가 있지 않았는가?

물론 취재·편집 등 회보 제작상의 여건을 향상시키려면 그 만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도 부러워하는 80주년에다가 그 뒤에는 7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있지 않은가? 문제는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일일텐데….아뭏든 창간 11주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취재·편집 등 그 제작 방식이나 제작팀의 운용이 11년전과 똑같다면 누가 믿을 건가?

이젠 東友會報도 혼자 취재하고 혼자 쓰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교정 보고 혼자 제작하는 일은 지양돼야 하지않는가? 東國이 고향이고 동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배 동문을 존경하고, 그래서 東友會報와 동창회를 무척 아끼는 마음에서 해보는 바램이다.

會費…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信一金屬商社
斗山金屬商社
信一金屬工芸社

信一金屬 : 서울·中区 乙支路3街251-3
電話 266-6662, 265-3258
275-5615
斗山金屬 : 서울·中区 山林洞 152-2
電話 265-1516
信一工芸 : 서울·中区 乙支路3街251-3
電話 265-1317

실내장식용금속판매

대표이사 金鍾葉
(84 경원)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설치
● 컴퓨터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 椿 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世進家具工芸店

TEL :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외)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汎韓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成光 대리점

업종 : 자동차·화재·특종·장기·상해보험등
각종 보험업무취급

대표 康鎭元 (72 경영)
TEL : 736-5362, 5361

서울 중구 삼각동 115 경기 B/D 1302호

東友의 징검다리

東友會報 11년

東國家族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東友會報」가 오는 5월 8일로 創刊 11주년을 맞는다。

同門사회의 연결路 구실과 함께 東國精神의 계승자로 母校와 同窓會의 발전에 앞장서 온「東友會報」는 앞으로도 同門들의 화합의 구심점이 될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지난 11년의 역사를 음미하며 회보의 창간과 이전의 휴보사항 각종 사업및 東友會報를 구성하는 난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한다。

1.會報創刊 이전

그 이전에도 부정기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이 있기는 하였지만 정식으로 會報적 역할을 해온것은 창간 4년전인 1972년 6월5일 母校「東大新聞」3면 하단에「同窓會소식」이라는 지면을 마련하므로서 會報의탄생을 잉태하였다。

당시「東大新聞」(주간=宋赫 59국문·作故, 편집부장=申寬浩 73경제·現 東大新聞社 편집국장)의 同窓會소식 첫 기사는 春川지부 창립총회와 同門동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 후에도 東大新聞이 나올 때마다 매주 한번씩 소식이 전해졌는데 東女會, 신민동우회, 言論동우회 농학과등의 창립총회와, 천안, 춘천, 아산, 전남, 경북 등의 지부활동 LA지부 美東部지부등 해외지부소식, 장학기금조성, 본회세미나 동문 동정 등이 그 당시 기사였다。

2.「東友會報」創刊

東友會報의 발간을 결의한 첫 회의는 72년 9월20일에 있었던 會長團會議에서였고 동년 9월25일에는 사무국 실무진들이 이 사업을 논의했으나 회보발행과는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후 1976년 5월11일字 東大新聞에서「동국인명록」발행과 함께「동우회보」창간기사가 나왔다。이 동창회란은 회보창간 후에도 계속되다가 77년 1월 4일 송연회와 임시총회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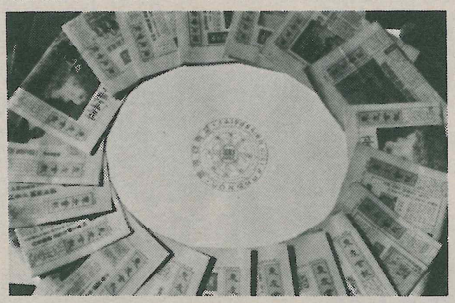
1976년 5월8일 개교 70周를 기해 발간된「동우회보」는 모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창간호는 崔載九 前회장의 창간사, 동창회 회칙, 同窓會의 발자취, 특별좌담회, 동국의 전통 74·75년도 결산보고 76년도 사업계획등이 실렸다。

尹天泳(66농학·세원건업대표 당시 사무국장)동문과 申寬浩 동문이 취재및 편집을 하였는데, 金長好(48 해전·母校교수) 閔圭鎬(50佛教·당시 時事통신사 상무이사)同門의「잊을수없는 東大時節」이라는 수필과 李網鉉(50국문) 金殷夏(51정치)동문이「나의 모교……동내시절」이란 회고, 李丙疇(50국문·母校교수) 동문의「提言」등이 실렸다。또한 母校 開校「장학기금조성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알리고 동문들의 협찬을촉구하기도 했다。

3.초창기의 東友會報

초창기「東友會報」의 주요사업으로는 동문간의 화합조성, 동문찾기, 장학기금조성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개교 70周장학기금조성은 동창회가 시종주도해온 것으로 회보에 모금액과 참여동문·단체등을 소개하고 참여를촉구하였으며재정해결을 위해 7·8號부터는 광고료및 年회비납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도 도입했다。또한 15, 6號까지는 同門시인들의 詩를 소개하는 등 文藝面에도 폭을 넓혀 제작했다。



초창기의 東友會報는 동창회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각면마다 특색있는 성격을 설정, 각계동문들의 가교매체로 자리를 잡는데 주력했다。

4.지난11년간의 주요연재물

많은 동문들이 참여 동문상호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盡力해온 東友會報는 그동안 많은 연재물을 마련, 동문들의 참여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가 하면 회보로서의 형식을 갖추고자, 그리고 東友會報만이 갖는 성격을 갖고자 다방면의연재물을 실었다。

▲東友提言=모교와 동창회의 활동을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난으로 창간호부터 연재되고 있다。

▲東國의 傳統=그동안 쌓아올린 전통을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 東國의 학문산맥을 이뤄온 불교학, 문학, 국문학, 사학, 영문학등의 논저를 중심으로 東國의 전통을 재조명한 것으로 창간호에서 63, 4號까지 연재되었다。

▲앞서가는 東友會=支會 또는 支部가운데 모범적인 모임을 소개하는 난으로 게재되는 東友會의 더큰 발전을 독려하고, 동문들의 결속력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欄으로 구명칭은 東友會데스크린, 지부탐방으로 創刊號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코끼리가족=화목한 가정을 이룬 동문가족과 부부동문을 소개하는 난으로 지령 3號에 李詰鎬 (62 國文·유명한의원 원장·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장) 동문부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른가족을 소개했다。

▲同門探訪=투철한 개인철학을 지닌 모범동문을 찾아 성공담을 취재, 게재함으로써 他동문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재물로 지령 2號에서 56號까지 연재되었다。

▲座談「學窓을 그리다」=졸업생들을 연도별로 초청, 흩어졌던 同期들이 모여 學窓時節을 회고하고 근황을 듣는다。<2號~56號>

▲東友斷想=다변화 시대에서의 東國人들의 체험담을 담은 난으로 19號에서 48號까지게재。

▲이사람=東國80년대의 영광의 그늘에서 헌신해온 사람을 비롯 동문들중 東國의 영광에 크게 기여한 人物을 선정, 인터뷰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109號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의 意專시절, 中央佛敎專門學校=金定基(49혜전) 金基奭(36中佛) 두동문으로 부터 당시의 생생한 역사를 듣는다(101號~104號. 109號~111號)

▲東同窓=同門들의 美談을 소개하고 母校와 本會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가십란(101호~)으로 최고인기란。

▲東友漫評=鄭雲耕(60국문·중앙일보 편집위원) 화백이 그리는 東友會報에서 유일한 그림으로 나타내는 記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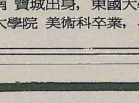
母校와 本會발전의 첨병…同門代辯紙 會館建立 기금조성, 學統계승에 盡力

5.최근의 東友會報

創刊號부터 지령90號까지두호씩 모아 합병호를만들은 東友會報는 그간 편집진이 바뀌면서 소폭의 변화가 있었으나 100號가 되면서 회보는 본격적인 新聞으로 변혁을 꾀했다。

겉지를 화보로 꾸미고(103號부터는 칼라로 화보를 꾸몄다) 기사에서도 사진도 크게 실는등 동문들의 남보를 크게보도하는 계획으로 꾸미며 東國精神을 고양할 기획을 마련, 동문과 함께하는 會報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本會가 안고있는 당면과제인 東國大學校總同窓會 會館建立이라는 大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함과동시에 연락이 끊어진지부 재과악, 새동문찾기, 장학기금조성에도 盡力하고있다。

表紙畵 작가소개



安谷 張在運 동문

作家略歷

全南 寶城出身, 東國大學校 敎育大學院 美術科卒業, 서울 長安라이온스클럽會員。

◇受賞

國展 入選 三回, 東亞美術大賞展 入選, 韓國 現代美術大賞展特別賞 受賞。

◇展示會

한국 서화가협회 회관건립 조성전, 심장병어린이 자선전, 現代 韓國畵 協會展, 스포츠오늘의 東洋畵展, 東樂展, 和墨展, 逸象會展, 韓國 美術協會 會員展외 다수。

沃田 姜智周先生師事, 現 韓國美術協會 會員, 現代韓國畵協會 會員。연락처 605~0018

남성복전문점
미네소타 MINNESOTA
■ 신사복·콤비·Y셔츠
■ 단체복·주문복 일체
■ 넥타이·벨트·지갑등 액세서리
전화주문환영
TEL:275-4564
대표朴順吉 (74국문)
서울·중구 을지로 3가
(지하상가 3-17호)

신용·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환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 영 진 (61경제)
중구 충무로5가73-2
266-0731·267-0195
265-0086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125-1
진양빌딩 3층 42호

●금은·보석·시계
三正堂
三正
☎ 779-3360
서울 중구 명동제일상가 마6호
代表 金基俊 61경제

東國人은
東國人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 重 五
(65영문)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新品種 호도 개발"

朴 敎 秀 동문

朴敎秀(75農博)동문 연구팀은 재래종보다 추위와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2.5배나되며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한 호도 신품종을 개발했다。

美國에서 도입한「칼파리안」호도를 개량, 국내에서 재배할수 있는 새 품종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 이 연구 결과를 곧 한국林學會에 보고하기로 했다。

朴동문팀은 호도외에는 재래종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밤과 糖度가 크게 높은 대추의 새품종개발에도 성공, 우리나라의 山地자원화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품종호도는 美國의 極耐寒性품종인「칼피라안」을 국내에맞게 개량한것으로 재래종이 영하22도C에서까지 재배가능한데 비해 영하40도C에서까지 재배할수있고 탄저병(잎이 까맣게 타는병)등 병에 특히 강한게 특징。

「雷虛불교학술상」수상

高翊晋 동문

高翊晋(69 불교·모교교수)동문이「제5회 雷虛 불교 학술상」을 수상했다。

모교 대학원장등을 역임했던 불교학자 故 雷虛 金東華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위해 지난83년 제정된 이 賞의 시상식은 지난 3월28일 오전11시, 李智冠 모교총장을 야 70여명의 불교관계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正覺寺(서울 성북동 소재)에서 있었는데 수상논문은「신라밀교의 사상내용과 전개양상」이였다。

한편 이날 수상자인 高동문은 상금 1백만원을 한국불교학회(회장=李載昌·모교교수)학술진흥기금으로 기탁했다。

불교동화전집 刊行

한상린 동문

한상린(86 미술)동문이 대한불교 문화 진흥회 및 佛書출판 보련각과 공동으로 어린이 포교의 일환으로 12권 1질의 한국불교동화전집을 刊行했다。

한同門이 글과 그림을 맡아 제작된 本書에는「해가 지는 곳」「서까래 세개」「관음바위」「종소리」등 2백74가지의 이야기가 실려있으며 전래불교설화를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수 있도록 꾸몄다。

한편 지난 2월26일에는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으며 전국사암및 신행단체 6백질을 법보시했다。

역대 총무처장관 초대

鄭寬溶 동문

鄭寬溶(58법학·총무처장관본회부회장) 동문은 지난 4월14일 하오 6시30분 李澔, 申斗泳, 鄭憲注, 李錫濱, 朴貴兢, 金容然, 朴世直씨등 역대 총무처장관 7명을 플라자호텔로 초청, 만찬을 배풀고 총무처업무에 관해 의견을 교환。

總務處총무국장 등 23년간 총무처에서 근무하면서 요직을 두루거친 鄭동문은 85년 내각개편때 총무처장관에 발탁되었으며 現在 本會 부회장으로 활약중이다。

「中堅作家 5人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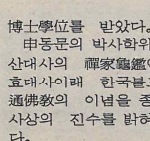
宋鎭世, 金鐘聲 동문

宋 鎭世(敎院 미술교육·사진)동문과 金鍾聲(敎院)동문이 지난 3월10일 부터 16일 까지 1주간 東崇美術館에서「中堅作家 5人展」을 가졌다。

朝鮮日報 現代家展 東南亞巡廻展 東亞國際美展등 활발한활동과 다수의 상을 수상한 宋동문과 佛 Le SALON은상 2회 수상 木友會展 특선 3회, 文藝振興院展賞수상등 다수의 초대전을 가진 金동문은 한국미술계의 중견작가이며 앞으로의활동이 기대되는 동문이다。

日, 大東文化 文博

申正午 동문



申正午(61사학, 67대원, 法名=法印)동문이 지난 3월25일 일본大東文化大에서 文學博士學位를 받았다。

申동문의 박사학위논문은「서산대사의 禪家龜鑑연구」로 원효대사이래 한국불교의 전통인 通佛教의 이념을 종합한 서산사상의 진수를 밝혀낸 勞作이다。

67년 母校 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하고 70년 대동문화대로유학한 申동문의 碩士논문은「西山의 儒家龜鑑연구」이며 박사는 유학한지 17년만의 결실이다。

극단「新協」 기념공연

金興雨 동문

金興雨(64연영·母校교수)동문이 운영하는 극단「新協」이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공연을 가졌다。

4월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서소문 호암아트홀무대에서 올린 이 연극의 제목은「황금연못」。

「헨리폰다」와「캐서린 헵번」주연의 영화로 잘 알려진 이 작품은 연못가 별장에 휴가온 퇴직교수부부와 그 가족얘기를그린 작품。원로 연극인 李海浪(前 모교교수)동문의 연출로 李承哲, 白星姬, 孫淑, 沈洋弘씨의 영화배우 崔戊龍씨가 출연。

1947년초 극예술협의회(劇協)란 이름으로 출발한 이 극단은 50년부터 新協이란 이름으로 극립극장 전속극단이 됐으며 62년 잠시 드라마센타에 전속됐다 탈퇴, 민간극단으로 오늘에 이르고있다。우리나라 最長壽극단。

방송심의위원 재선임

朴完一 동문

朴完一(61불교·전국 신도회 회장·보회 부회장)동문이 지난 달열린 제4기 방송심의 위원회에서 방송심의위원에 재선임됐다。

제4기 방송위원회의 임기는 89년 3월29일까지이다。

同門동정

위 동문들의 本人의 近況이나 주변 소식등이 있으면 언제라도 提報 바랍니다。

(株)대우 부사장

金榮煥 동문

金榮煥(62경제·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최근(株)대우 부사장으로 영진했다。

金동문은 공인회계사로 (株)雙龍洋灰工業理事를거쳐 大宇實業(株)이사, 동상무이사(株)대우이사로 근무해오다 이번에(株)대우부사장으로 영전한 것이다。

국제통신(株)代表理事

羅得煥 동문

羅得煥(경원 17기)동문은 지난 4월13일 字로 亞南 精密株式 會社 副社長 에서 國際通信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副社長으로 취임했다。

羅동문은 20년간 군에 있으며 육군본부 감찰실등에서 근무해오다 지난 '85년 중령으로 예편, 아남정밀(株)전무이사, 부사장을 거쳐 이번 국제통신공사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한것。

회사주소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1061號이며 전화는 755—0835이다。

「大日本……」기증 받아

김지견 동문

김지견(60佛敎·63佛碩·강원大 교수)동문은 정통불교연구원주최 정기학술회의 섭외와 강연次 지난3월 도일하여 大阪소재 교포은행인 흥업은행 이승재氏로부터「大日本佛敎全書」1백61권을 기증받았다。

한편 金동문은 3월17일 신한은행 대판지점 개설 1주년 기념식에서「無得사상을 통해본 한일문화」에 대해 강연했고, 흥업은행에서는「한국의 정신문화」란 연제로 강연하는 등 재일동포를 위한 정신문화강좌를 갖고 지난달 20일 귀국했다。

鑑定院 목포 지점장

黃旻煥 동문

黃旻煥(67行政·69行碩)동문이 지난 4월 1일字로 韓國鑑定院 不動産 鑑定部 審査役에서 韓國鑑定院 목포지점장으로 영전하였다。

母校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69년도에는 母校 大學院에서 行政學 碩士학위를 받은 黃동문은 그동안 韓國鑑定院의 주요직을 맡다 이번에 영전하였는데 黃동문은 現在 本會 理事로 本會發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북 임실전매소장

全容夏 동문

全容夏(63 상학)동문이 최근에 한국전매공사 임실전매소 소장으로 영전했다。

한국전매공사 전주연초제조청 남원전매소등 전매관계 업무를 해온 全동문은 그동안 남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임실 전매소 소장으로 승진한것。

출판대행「佛地社」설립

金衡均 동문

金衡均(74佛學)동문이 지난3월28일 출판대행사인「佛地社」를 설립했다。

同 사무실은 출판대행업 기획, 편집 사식등 출판물에 관해 일체의 업무를 하고있다。

金동문은 불교신문 記者를거쳐 월간「금강」편집장, 월간「대원」편집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同사 무실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 중구 묵정동 18—27대한문화사 305號 TEL277—2676

結 婚

▲윤종국 (84국교·안국화재근무) 나혜숙(84국교·덕수중교사)=4월18일 (土) 오후2시 신사동 그랜드 예식장에서 本人화촉。

▲金海東 (59佛敎·62佛碩)=4월11일 (土) 오후2시30분 강남 목화예식장 2층 성실에서 次男결혼。

알 림

▲李周炯 (65경제) 동문이 지난2년간 재직하였던 농어촌개발공사광주지사가 '86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國會를 통과 87년 1월 1일을 기해 農水産物流通會社로 改名 李동문의 재직처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지부로 변경。

榮進轉補

<흥국생명>

▲鄭慶鎬(62경제)=지난 2월말 보전 전산담당 理事에서 정년퇴임

▲孫萬鍾(67통계)=전산실장에서 종합기획실장으로

▲南昌東(71입학)=대전영업국 관리과장에서 인천영업국 교육과장으로

▲黃國煥(76政外)=영업총괄팀 과장에서 영업1과장으로

▲金承泰(76政外)=관동영업국 관리과장에서 경기영업국 관리과장으로

▲李麗松(77무역)=관동영업국 교육과장에서 수원영업국 교육과장으로

<이상 3月1日字 발령>

<韓國監定院>

▲金榮洙 (62경제)=충부지점 차장에서 인사부 조사역으로

▲李泰漢(73경영)=감사실 검사역에서 안등지점 차장으로 승진

▲金鉉仁(78정외)=부동산 감정부 부감정역에서 춘천지점 감정역으로 승진

▲洪淳敏(80경영)=부동산 감정부에서 천안지점으로

<해태제과>

▲張東憲(71식공)=품질관리부 부장에서 생산관리실 실장(수석부장)으로승진

▲金光正(73통계)=북부지점장(차장급)에서 냉동식품담당부장으로승진

최고 년 13.29%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I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표 771-06

앞서가는 東友會 政外科 同窓會

東國政治人의 산실, 政治 1번지

후배들 외국유학까지 뒷받침예정

東國政治의 1번지

우리나라 政街에 모교출신의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정계에서 활약중인 동문들중 모교정치외교학과 등창회 회원(지도위원포함)이 70퍼센트를 넘고있다면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정계의 진출범위를 쉽게 이해할수 있다 하겠다.

모교출신 現職 國會議員 18명중에 鄭在哲(52·政務長官) 總同窓會 會長, 朴翊柱(61·국회건설분과 위원장)政治外交學科 同窓會長을 비롯해 金東英(60·前 신민당원내총무)總同窓會 副會長, 愼順範(61·同會 지도의원) 동문 등 現職議員만 15名(지도위원포함)에 崔炯佑(63·前신민당 부총재·總同窓會 理事) 동문, 黃明秀(53·前 신민당 훈련원장)등 다수의 政界主要人物이 政外科 동창회 회원으로 가히 東國 政治人의 산실이요 東國政治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듯 하다.

이와같이 科의 명칭대로 정치활동에 종사하는 동문들이많다보니 모임의 회의진행도 『회장 독단적인 결정은 있을 수 없죠。모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종합되고 대선배님들의 생각과 부합 된다면 그것이 결정이죠』이라고 민주적 회의운영을 강조하는 朴翊柱회장의 말대로 상당히 치밀하고도 민주적(?)으로 운영함은 지난 4월23일 모교 다향관에서 있었던 87년도 제1차 정치외교학과 정기 이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國際的인 후배육성

朴翊柱회장을 중심으로 87년도 졸업생까지 1천9백90여명의 會員으로 구성된 同會는 타학과 동창회보다 후배를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매학기 4명의 학부생과 2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뿐더러 同會의 한 支部이기도한 政研會에서도 매학기 3명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타모임의 후배육성 장학금지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同會의 한 임원은 자랑삼아 말하기도 한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인물을 우리 政外科에서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個人의 피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배도서 끌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뒷받침해, 외국유학까지 보조할 계획입니다』라고 후배양성에 盡力하겠다고 밝히는 朴회장은『외형적 공약으로 계획만 계속 늘어놓고싶지는 않읍니다。다만 현재 장학기금이 붙어나고 있으나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회를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라고 장학기금목표액과 해외유학후배지원에 대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

벽돌 하나씩 차근차근……

국회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 집앞도로포장을 앞장서서 해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향집앞은 포장을 못했을 정도로 동문들 사이에 사심이 없다는 평을 듣고있는 朴회장은『經濟도 중요하고 社會發展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잘되려면 政治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현대이기에 최고학부의 政外科는 집중 육성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왕 前회장님이 원체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으셔서 나는 그 위에 벽돌하나씩 쌓는 기분으로 회의 운영을 여러 임원진과 상의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라며 지난 3월에 會長으로 취임했기에 아직은 커다랗게 벌여놓은 일이 없다고 겸손해하는 朴회장은 이미 조직강화를 위해 회원수첩제작, 會報의 發刊, 동창회 사무실개설 등 기존의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87년 1차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키기도 한, 말보다 實踐을 먼저하는 政治人이기도。

특히 同會에서는 母校 政外科후배들의 학문연구에 도움을 주는 학술세미나를 연2회에 걸쳐 6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에대해 朴회장은『東北亞의現實을 무시하고 우리의 現實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하며『학술세미나를 통해 安保문제 전문가를 초치, 강연과함께 토론회도 겸해 政治일변도의 일방론적 시각 교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다.

各界에서 활약상 돋보여

모두에서 밝혔듯이 政外科 동창회는 시쳇말로 출세(?)한 동문이 많다。이미 언급한 정치계의 동문뿐만 아니라 세계여성단체 협의회의장을 맡고있는 洪淑子(55·총동창회 부회장)동문, 禹順伊(60·협성테이프 대표·총동창회 이사)동문, 백경남(65·모교교수)동문등 여성계를 비롯하여 兪光鎭(64·모교 교수·총동창회 이사)동문, 이병화(64·부산대교수)동문, 김희오(64·모교교수)동문, 양재이(71·경남대교수) 동문등 敎育界, 김유복(51·고속터미널 대표·同會고문) 동문, 홍순지(52·퍼시픽 콘트롤스 대표·同會고문) 동문, 김성섭(53·대한모방회장·총동창회 부회장) 동문, 김북철(62·평화기업(주)대표) 동문, 한상근(60·천일제약대표) 동문등 政治·經濟·女性界 文化·제약계 등 다방면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앞서가는 東友會 이기도….

▲사진은 지난3月 동문의밤 광경

<政治外交學科同窓會 주요임원>

◇명예회장

▲김은하(52)=前 국회부의장 ▲왕표순(55)=송곡여고 교장

◇회장

▲朴翊柱(61·국회건설분과위원장)

◇부회장단

▲김북철(62)=수석부회장 평화기업(주)대표▲박내춘(51)▲손영섭(52)▲허윤수(54)=전국은행협회 총무부장▲이법석(57)=경일에식장대표 ▲한상근(60)=장학담당·천일제약대표 ▲박낙원(61)=테크석유상사대표 ▲정문현(61)▲김문환(64)=재정담당·세진가구대표▲유광진(64)=모교교수▲조병호(66)=티파니 보석상 대표 ▲홍원표(68)=미이상사·미아목장대표

◇감사

▲백홍종(52) ▲김해수(67)=경원개발 대표

◇사무국

▲김영일(63)=사무총장·상아문화사 대표 ▲고용규(74)=사무국장(대리) 명인제약이사 ▲최재근(84) =간사·동국대정외과 조교

◇고문

▲김유복(51) =고속터미날대표▲김지복 (52) ▲홍순지(52)=퍼스픽 콘트롤스대표▲김성섭(53) =대한모방 대표▲목진하(51) =신갈컨트리클럽 전무▲황명수 (53) =전 신민당 훈련원장 ▲문명건 (54) =사단법인 해함회 회장▲홍숙자 (55)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석용(58) =한국자동차보험 부사장▲평복창 (58) =삼성 시흥센타 대표▲우순이(60) =협성테이프 대표▲안혁순 (59) =(주) 금강 부사장▲최형우 (63) =전 신민당 부총재

朴翊柱회장

김북철수석부회장

한상근부회장

박낙원부회장

김문환부회장

유광진부회장

홍원표부회장

백홍종감사

김영일동문

現代自動車(株)
HYUNDAI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랜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판매과장 : 柳在善 (70농경·ROTC 8기)
TEL 274-3103~7
야간 914-6584

자동차 감종점검 및 검사대행
자동차보험 계약공장
견인차(대소형) 주야봉사
자동차보험 업무취급
오너드라이버 특별서비스
전화상담환영
1급자동차정비사업체
오성공업사
635-3651~3
635-282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77-46(정비단지內)

에 대한 모든것
(783) 2707 · (782) 9721-2
*시내연수 - 3시간내 자신감부여
*렌트카 - 각종차량 구비
*대리운전 - 24시간 대기
*보험 · 정비 · 기사알선
자동차 써비스라인 회원모집
(株)南陽企劃
代表 李鐘蘭
(경원 여학생회장 · 총무)

대우자동차(株)
'87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월드카 르망시리즈(GSE·GTE·레이서)
TEL. 540-4740(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 崔鉉石 (74연영)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B/D 1층)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출력증가/수명연장
■석봉자랑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 沈載録·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원체 愛校心이 유별난 분이라 그만…"

실업계 膾炙되는 영업관계 거의 鄭동문작품

<31>

夫婦동문

◇鄭 炳 樂
<67 경행·금성사무기기 대표>

◇李 英 子
<84 敎院·화가>

『내가 東國을 사랑해야 되는것은 당연합니다。특별한 이유나,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가 東國에서 나의 대학시절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니까요』

친형과 아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모교에 입학케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의 현재사업에 후배를 끌어주는 鄭炳樂(67경행) 동문과 그의부인 李英子(84교원)동문。

아내를 同門으로

남편의 끈질긴 권유로 모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는 李동문은『주위에서는 미술을 하려면 H大로 가라는 권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의 계속적인 권유에 결국 東國을 택하게 되었지요。원체愛校心 유별난 분이라 결국 내가 그분 말에 따랐다고 할까요』라고 밝히며『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입니다。남들한테 불도저 라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집안에서는 남들이 알지못하는 자상한 면이 있다』고 鄭동문의 성격을 자랑하기도。

李동문의 말대로 한번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밀어붙이는鄭동문의 추진력을 그의 사업경력에서 볼 수있다。

제약계 영업관계에서는 아직까지도 神話的(?)사건 이라는 D약품의 드링크제 시장확보를 비롯하여 70년대 국내상품판매소에 필수품으로 한때 붐을 일으켰던 금전등록기영업과 현재는 정착기에 접어든 메모리 타자기보급에 혁혁한 수완을 발휘하는등 흔히 실업계에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굴직굴직한 영업관계는 거의가 鄭동문의 작품。

『아내의 내조가 내가 밖에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힘이되었읍니다。집안일을 샥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뛰었지요 금전등록기를 국내에 보급하기위해 뛰어다닐때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었죠 하루가 멀다하고 지방으로 손수 운전하고 다닐때 아내는 묵묵히 집안 일을 해주었으니까요』

▲외아들 鄭이든君의 고교졸업때의 모습。

라고 아내의 내조가 자신의오늘날에 원동력이었다고 밝히는 鄭동문은 요즘도 최우수 전문경영인賞을 3년연속 수상하는 등 국내 전자사무기기 영업관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이며 李동문도 역시 교육대학원 미술학과 출신 화가들의 모임인 일상회 총무를 비롯,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달리는 동문부부。

부처님의 그늘에서 생활

母校의 기둥이되는 傳統이佛敎인지라 휴일에는 사찰을 가족과함께 찾는 鄭동문의 집안은 목탁, 염주등 佛敎를 나타낼수있는 것으로 가득한 부처님과 함께하는 鄭동문부부。

『감히 佛敎의 심오한 지혜를 체득하려는 이에 불과하죠 저의 母校가 불교를 중심으로 설장했기에 저도 佛敎를 중심으로 生活을 할 뿐입니다』라고 겸손해하는 鄭동문은 우리말 사용에도 남다른 관심이있어 외아들 이름을 순 우리말인「이든」이라고 짓기도。

『정직하고 착하다는 뜻의 순한글이죠 몇년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우리말 이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죠』라고 밝히는 鄭동문은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서 생소한 순우리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자 무엇보다도 자신의 뿌리를 알이야 된다는것이 평소의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틱월한 내조(?)

鄭동문의「V·B·P·C·U」의 까다로운(?)결혼조건을 다 갖춘 李동문은 현대여성이 갖추어야 할 모든점을 갖춘 팔방미인으로 부군인 鄭동문의 사업에도 한몫, 현재 부군이 경영하는 내리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경리파트를 맡고있기도 하다。

『아내가 도움을 주어 한결 편리합니다。그래서 요즘은 함께 뛰고있는 사원들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지요。사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말로만 주인의식 갖으라고 상명하달식의 획일적 교육보다는 분임토의를 통해 사장과 사원이 함께 사업을 책임지는 것을 시도하고있지요。그리고 사원들의 Know How를 Save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려고 합니다』라고 자신의 사업관을 말하는 鄭동문은 30여명의 사원들의 사옥을 우의동에 금년중에 짓기위해 20일 기공을 하는등 우리사회 사업인들의 귀감이 될만큼 사원을 끔직히 생각하는 동문이기도。

전산인의 모임 결성에…

『주위에서 大學을 論할때면 저는 우선 東國을 거론하죠』라고 인터뷰도중에도 계속적으로 東國을 입에 담는 鄭동문은 후배들, 특히 전자계산과나 전산계통의 후배들의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쉬지않고 뛰는 동문으로『母校에 전산과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전산인의 모임이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저는 전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전산관계를 일을 하니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배가 되고 싶읍니다。총동창회에서도 중간역할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밝히기도…。

도봉구 명예구청장과 아들인 이든君이 학교동창회의 임원등 다방면에 걸쳐 맹렬히 활동하는 鄭동문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앞서뛰어가는 東國人이기도 하다。

모교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학교도 철저한 미비점검파악및 자체노력이 필요하지만 선배들이 강력하게 지원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동문들간의 연대감 조성및 모교방문행사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죠』라고 밝히며 자신의 뿌리는 東國이기에 결코 동국과 유리된 생각과 활동은 있을수 없다고 밝히기도…。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이지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곧 보내 드리겠읍니다。

▲金世正(83행원)=강남구 청담동 134—21 삼익APT14동 301호

▲여인영(60법학)=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52—23번지

▲윤상환(86사학)=은평구 구산동 14—6

▲金鍾玉(66법학)=중구 인현동2가 77—1 상업은행 세운지점 치장

▲安孝煥 (80행정)=보건사회부 차관 보좌관

▲具光翼(73정외)=강남 꽃도매상가 코벤트스토아 지하81호 Tel (532—7757

▲동영준(84체육)=도봉구 공릉동1동633—5 광진연립201호

▲추광문(86전기)=강남구 대치동 청실APT5동 108호

▲김홍주(63경영)=서울 면목1동 548—35

▲강병운(66법학)=광주시 서구 송화동254—14 송암공단내 동양물산기업(주)전남영업소장

▲이택수 (70·경제)=동대문구 장안동95 현대APD 12동 480호

▲이용수 ( )=종로구 평창동388—5

▲김효찬(85 전자)=동대문구 망우1동 206—22

▲이종훈(84 회계)=중구 오장동14—10 화성BD301호

▲김희남(85경영)=강남구 역삼동 영동APT 49동 408호

▲이돈혁(84전산)=마포구 동교동 147—57

▲황병학(74일학)=은평구 갈현동 494—11 한국화약그룹 새마을 사무국대리

▲박이용(85경제)=경기도 광명시 철산3 주공아파트 1217동 1202호

▲김현권(71경제)=종로구 연지동 1—1 석유화학공업협회 기획차장

▲고석면(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기계과장

▲우수성( )=강남구 서초동 1597—4 서초빌딩 103호

알 림

동문 원고모집

本報에서는 東友會報 創刊 11周年을 맞이하여 本報를 全 東國人이 참여하는 대화의 광장이 되고자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원고 내용

*隨筆……15枚 내외
*同窓會館建立에 대한 나의 의견……15枚 내외
*同窓會發展을 위한 나의 제언……15枚 내외

◇제출처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보편집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 편집실로 문의바람。전화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정이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편리하고 품위있게 치르실 수 있읍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만족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언제라도 전화하여 주시면 예산에 맞추어 실속있게 준비해 드리겠읍니다.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 출장 서비스가 번거로우신 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춘 프라자의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
■ 예약및 문의 : 전화771-22 교환7245~7249
서울프라자호텔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평 우(70경영)

세무사 鄭 大 鎭(63법학)
稅務상담·기장대리
심사·심판·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 40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졸업생 취업률 76퍼센트

여학생 취업률은 저조한 상태

母校 86학년도 졸업생의 전체취업률이 총 75·64퍼센트로 집계되었다.

학생처 발표에 따르면 86학년도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은 대상인원 총 2천 2백 9명 가운데 1천 6백 71명이 취업, 75.64퍼센트를 보였고, 대학원 진학자 (1백 11명) 와 군입대자 (1백 56명) 을 제외한 순수취업은 1천 3백 96명으로 62.64퍼센트를 나타냈다.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천 5백 66명 중 1천 4백 9명이 취업, 90·97퍼센트를 나타냈고 여자는 6백 43명중 2백 62명이 취업, 40·74퍼센트를 보였다.

또한 직종별로 보면 일반기업체가 8백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1백 85명, 공무원 89명, 교직 57명, 자가사업 15명, 기타 1백 96명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일반기업체에 7백 48명, 금융기관 1백 52명, 공무원 78명, 교직 42명등이며 여자는 일반기업체가 97명, 금융기관 33명, 교직 15명, 공무원 11명등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직종분포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재학생 전방입소 교육 총 96·8퍼센트로 집계

모교 재학생의 전방입소 교육 지원율이 96·8%로 집계되었다.

교무처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부터 전방부대입소교육이 종전의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게됨에 따라 2학년 교련교육대상자중 수강신청을 한사람에 한해 입소교육이 실시되는데 모교에서는 총 1천 2백 73명 대상에 1천 2백 33명이 신청, 96·8%의 지원율을 보인 것이다.

모교재학생의 87학년도 전방부대 교육및 경계근무는 오는 6월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 ○○사단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산 일원에서 실시되는 동국인 등산대회는 동국인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25일, 東國人 등산대회

정릉출발 北漢山일원서

개교 81주년기념및 4·19 제27주년기념「제18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25일 오전 9시30분 정릉 청수장앞에서 시작된다.

청수장에서 보국문, 태고사, 도선산의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등산대회는 동문부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이번 동국인등산대회는 4·19를 기념하고동국인의 체력향상과 상호협동하는 건전한 기풍을 함양하기위해 매년 실시하는것으로 도착지인 도선사 주차장 에서는 폐회식과 함께 장기자랑등의여흥시간을 가질예정이다.

「東慶語文…」발간

개교80주년사업 일환으로

母校 경주캠퍼스 人文科學大學 국어국문과에서 개교80주년 기념「東慶語文論集 제2집」을 발간 배부했다.

東國文學의 傳統繼承과 폭넓은 학문수렴을 위해 발간된이번 논문집은 金英培 (文科大국문과) 교수의 「석보상절 제3주석」을 비롯, 8편의 교수, 졸업생논문과 86년도 하계학술조사보고서, 졸업생논문제목등 총 2백45편의 분량으로 전국 각 대학 도서관및 87학년도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총 1천여부가 배부되었다.

總女學生會 바자회

5월13일부터 4일간

母校 總女學生會에서는 오는 5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다향관앞에서 바자회를 실시한다.

병원건립기금및 구속학생 뒤바라지를 위한 기금마련을 목표로 실시하는 이번 바자회에는 동문, 교수, 재학생, 교직원등이 기증한 서화류, 책자, 장난감등 다양한 품목으로 열리게된다.

총장기 全國 男女高校농구대회

男子 15개팀등 총 35개팀 출전

제13회 母校 총장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4월22일부터 30일까지 모교 체육관및 장충체육관에서 있다.

지난해 우승교인 용산고와 숭의여고등 남자부 15개교팀, 여자부20개교팀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예선전은 모교체육관에서 열리며 준결승및 결승전은 장충체육관에서 있다.

慶州한의대 학생장 선거

투표자수 미달로 무산돼

慶州캠퍼스 한의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투표자수 미달로 무효화되었다. 「선관위」측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28일 안대섭(本·2)군과 정수년(本·2)군이 출마, 등록을 마쳤으나 총 유권자 5백84명중 2백51명만 투표, 선거규약 14소의 정족수항에 의해 투표자 미달로 무효화 되었다.

慶州「총대」임시총회

대자보사건등 논의

慶州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李종호)임시총회가 지난 3월26일 오전11시 1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실에서 였했다.

현시국에 대한 토론과 대의원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였던 이날 총회는 학생자치기구를 질책하는 대자보가 총학측에 의해 찢긴데대한 토의장으로 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4개항을 결의한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했다.

레슬링부 단체우승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서

母校 레스링부가 지난4월9일부터 11일까지 광주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제5회 회장기쟁탈 전국레스링대회에서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母校레스링부는 자유형에 참가, 다섯체급을 우승하는등 발군의 실력을 발휘 종합우승을 차지한것.

자유형 각체급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상규 (체교 1·57㎏급), 고영호(체교3·62㎏급), 김억수(체교3·68㎏급) 김광수(경행3·74㎏급), 김정복(경행2·82㎏급)

의대 건립기금 답지

전산원 교직원 173만원등

母校 의대건립기금이 각계에서 답지되고 있다.

지난4월2일에서 전산원 교직원일동이 李智冠총장에게 1백73만원을 기탁한것을 비롯 15일에는 경주 분대출신의 이시우동문외 11명의 경주캠퍼스 교직원이 1백20만원을 기탁했다.

한의대 학장에 林鍾國교수

南都泳부총장 퇴임에 따라

林 鍾 國 학장

모교당국은 한의과대학장을 겸임해왔던 南都泳 경주캠퍼스 부총장이 지난2월말 정년 퇴임함에 따라 그동안 공석중이던 한의과대학장에 林鍾國(한의예과)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林학장은 취임소감을통해 『한의과대가 안고있는 제반 문제점을 척결, 本校가 명실상부한 국내최고의 한의과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林학장의 약력은 다음과같다. ▲38년 평양生 ▲60년 경희대한의학과卒 ▲75년 원광대초교수 ▲76년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82년 원광대 한의학과대학장

저희 태화기업 은
신용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상가빌딩, 주택, 공장, 교회, 병원, 학교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 일체
건설업면허 : 제918호

大華企業株式會社
대표이사 정 현 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4-4 영동우체국사서함615호
전화 548-4357~9 548-4966

세계로 뻗는 東國科學

4세대 항생제 개발, 文順九 동문

제3세대 항생제중 가장 첨단의 제제로 평가받고 있는 세프리악손나트륨이 文順九 (72화학) 동문의 연구에 의해 한미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자체개발, 스위스 로슈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국내합성에성공하는개가를올린 文동문을찾아보았다。

—의학전문지등의 보도에 의하면 대단한 약이라고 하는데….

『세프리악손 주사제는 다른 세파로스포린 항생제보다 호흡기 염증이나 비뇨기계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에대하여 훨씬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항생제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에서도 자체합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게 사실입니다』

—이번의 개발로 국내 약학계및 경제면에 많은 도움이 있지요。

『국내는 물론 세계2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중에있는 세프리악손의 합성성공에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왔던(수입가 kg당 6천달러) 이제제의 국내 소요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어 수입량을 5백kg으로 예상했을때 년간 3백만 달러의 외화절약 효과를 얻을수 있죠。계속적으로 이 약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로 감안하면 상당한 외화절감효과를 가져오죠』

—과학분야에 있는 동문들 사이에 文동문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던데 지난 5년간 이 약을 개발하며 힘들었던일과 이를 극복할수있는 원동력이라면….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정부기관을 비롯해 각기 업에서 앞을 다투어 개발에 착수 초반에는 남에게 뒤질까 걱정도 했지요。특히 실험과정에서는 잘되었는데 현장화에서 미비점이 나올때면 정신적 고통이 많았읍니다。

특히 母校에는 약학계통의 학과가 없다보니 이 분야에 동문이 적어 어려움이 있기도했죠 그리고 타대학출신들, 특히 S大출신들 사이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실력만이 제일이라고판단, 그들의 세배이상 노력했죠』

—母校의 이과계통의 후배로 제약분야 지망하는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말은….

『꾸준한 노력에 의한 실력의 향상이죠。학교에서 장학금 타고 다닌다고 우쭐하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소위 이과계통의 名門이라는 대학의 학생들을 이길수 있는 실력 배양이 제일 중요하다고생각해요。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약분야 (특히 이과계통의 연구팀) 에 동문이 적은편이지만 실력들이 대단해요。결코 제약분야의 주류를 차지한다는 S大출신에 뒤지지 않죠 계속 훌륭한 후배를기워 제약계에서의 東國의 힘을 과시하고싶은 것이 제 작은 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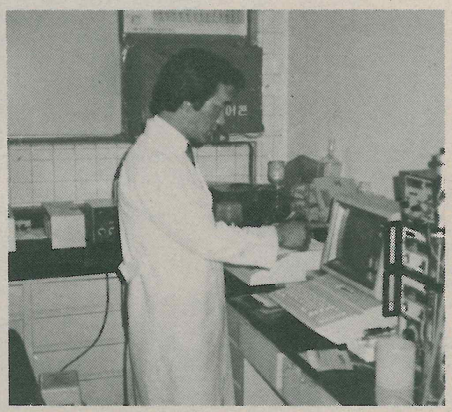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내공부가 바빠 후배들에 신경을 못썼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후배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려합니다』

—현재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코스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학위가 나오면 후배들을위해 강단에 서고 싶어요。이론적 학습보다도 현장에서 내가 체험한 것을 가르치는 실전 실력을 쌓는것에몰두하고싶어요。또한 내가 제약분야에 있으니

國內최초…세계에서 두번째 개발

"實力있는 후배양성에 盡力 할터"



뜨거운 同門愛…빛을 찾아주다

"同門愛가 준 光明"

오랜기간동안 한쪽눈을 失明, 고생을하는 동문의 소식에 입원비 일체를 부담하며 밝은빛을 보게한 동문이 있어 동문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66년 농학과를 졸업한 李昌勳동문으로 李동문은 13년만에 학창시절의 친구 朴모동문을 만나게 되었는데 朴모동문은 한쪽눈을 실명한 상태이며 가사형편상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즉각 치료비 전액부담하며 지난 10일 영등포 金안과에서 수술을시켜 朴모동문에 광명을주었다는것。

현재 인천에서 세창기계공업(株)을 운영하는 李동문은 이 일을 알아보려는 동문들께 『특별한 일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고 겸손, 더욱 주위의 칭송을 듣기도。

"會報發刊 他모임의 모범"

本會 支會중에서 會報까지 발간하며 同支會의 發展을 위한 홍보는 물론 母校와 總同窓會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는 支會가 있어 동문사이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곳이 있다。

嶺東 東友會의 會報가 그 주목의 대상으로 同會報는 3개월에 하번씩 발행하며 同會회원들의 친목은 물론 총동창회의 행사기사및 母校기사도 저리하고 있다는것。

홍보의 시대에 부응, 완벽한 홍보를 하고있는 嶺東 東友會의 會報를 접한 동문은

東동국대同동창회動움직임

『모임으로의 철저한 조직관리를 위해 회보까지 발행하며 盡力하는 영동동우회는 타모임에 모범이 될 것이며 내가 속해있는 모임에서도 會報의 創刊를 해야겠다』고 말하며 영동 동우회의 발빠른 조직홍보를 부러워 하기도….

"얼굴 붉히며 아룁니다"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고 현대사회는 개인보다는 조직의 삶이 중요하며 조직은 회원들의 회비로서 운영된다는 등의 원론적 논리는 차지하고 얼굴 붉히며 여러 동문제위에 송구히 말씀아뢰옵니다。현재 본회는후배들을위한 장학금지급, 각종행사주최, 회보발간으로해서 동문들의 성금다리가 되려고 노력하고자 하고있다는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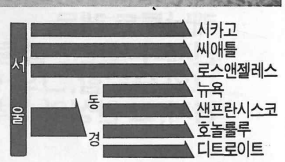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조직과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동문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현실입니다。

他대학 동창회와 비교하는 것이 우습고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여하튼 개교된지 여든한해나된 전통깊은 모교출신의 모임인 本會에 정확히 파악된 회원만 2만여명에 이르건만 會費납부를 비롯해 행사에 참여하는 동문은 일부에 이르고 그 일부도 항상 그 사람…. 얼굴붉히며 다시 한번 아룁니다。1년간의 연회비는 1만원이고 총회를 비롯해「동국인의 밤」등 동문들의 모임이 다수있으니 함께하는 동국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各種 行事에 많은 참여 있기를….

시카고로 가십니까? 40 YEARS ACROSS THE PACIFIC
논스톱으로 다녀오십시오.

서울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시카고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노스웨스트의 시카고 논스톱을 권해 드립니다. 매주 3회(월, 목, 토) 운항되는 시카고 논스톱편에는 도착후 산뜻한 기분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보다 넓직한 좌석, 최고급 와인및 정갈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읍니다.
또한 시카고 이외의 도시로 가실 분은 에어링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미국내 200여 도시로 모셔드리는 노스웨스트 미국내 연결편을 이용하십시오. 미국으로의 빠르고 편안한 여행은 단연 노스웨스트입니다.



노스웨스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울 734-7800 ●샬항공 735-8500 ●조선호텔 777-9786 ●롯데호텔 778-8240/1 ●힐튼호텔 752-2394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

NORTHWEST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남자, 그 완성의 향취―
쾌남루트 레몬
남자의 피부가 봄을 맞는다.
쾌남루트 레몬.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주는
그의 순수함, 그의 향기―
남자, 그 완성의 향취―쾌남루트 레몬.
ROOT
루트 레몬로숀
ROOT
루트 레몬스킨
〈권장소비자가격〉
●쾌남루트 레몬로숀 ············ 150㎖·5,300원
●쾌남루트 레몬스킨 ············ 150㎖·5,300원
●쾌남루트 스킨마일드 ·········· 150㎖·5,300원
●쾌남루트 헤어크림 ············ 130㎖·5,000원
●쾌남루트 헤어토닉 ············ 130㎖·5,500원
●쾌남루트 헤어리퀴드 ·········· 130㎖·5,500원
●쾌남루트 포마드 ·············· 60g·5,500원
●지나친 담배와 술을 삼갑시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아모레
快男루트
'88서울올림픽 공식 남성화장품

인쇄 : 동명인쇄사